

무등산 품은 광천터미널...‘더 그레이트 광주’ 시동

광주신세계, 35층 터미널·44층 복합시설 조감도 공개
주상절리 모티브 신관·650석 공연장 포함 2033년 완공

㈜광주신세계가 광천동 일원에 선보일 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상절리 등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콘셉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33년 준공 예정인 광천동 복합터미널 디자인에 무등산 주상절리 등 광주만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입된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도시계

획 전문기업인 네덜란드의 ‘아카디스’ (Arcadis) 사가 맡았다.

아카디스는 전 세계 30여개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광천터미널을 광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또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와 무등산이라는 지형적 특징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작업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신축 조감도

그 결과 무등산에서 시작해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광주 도심, 여기에 서남해안으로 연결되는 지형적 특성을 참고해서 광천터미널의 스카이라인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디자인은 신세계가 제시한 프로젝트 구

상인 ‘더 그레이트 광주’ (The Great Gwangju)를 공간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부 건물에 광주만의 정체성을 담고자 힘썼으며 무등산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신관이 대표적이다.

광천터미널에 새로 지어질 백화점의 모티브가 된 무등산 주상절리는 산 정상 부근에 발달한 기둥 모양의 암석 지형으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지질유산이다.

또 하이엔드 컨퍼런스 시설을 갖춘 상업 복합 시설을 비롯해 공연장, 이용자 친화 터미널 등 공익성까지 담아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터미널과 650석 규모로 클래식과 뮤지컬 등이 열릴 공연장 등을 통해 도시 이용 인구 3000만 시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광주신세계와 아카디스는 광주를 대표하는 우뚝 솟은 무등산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백화점도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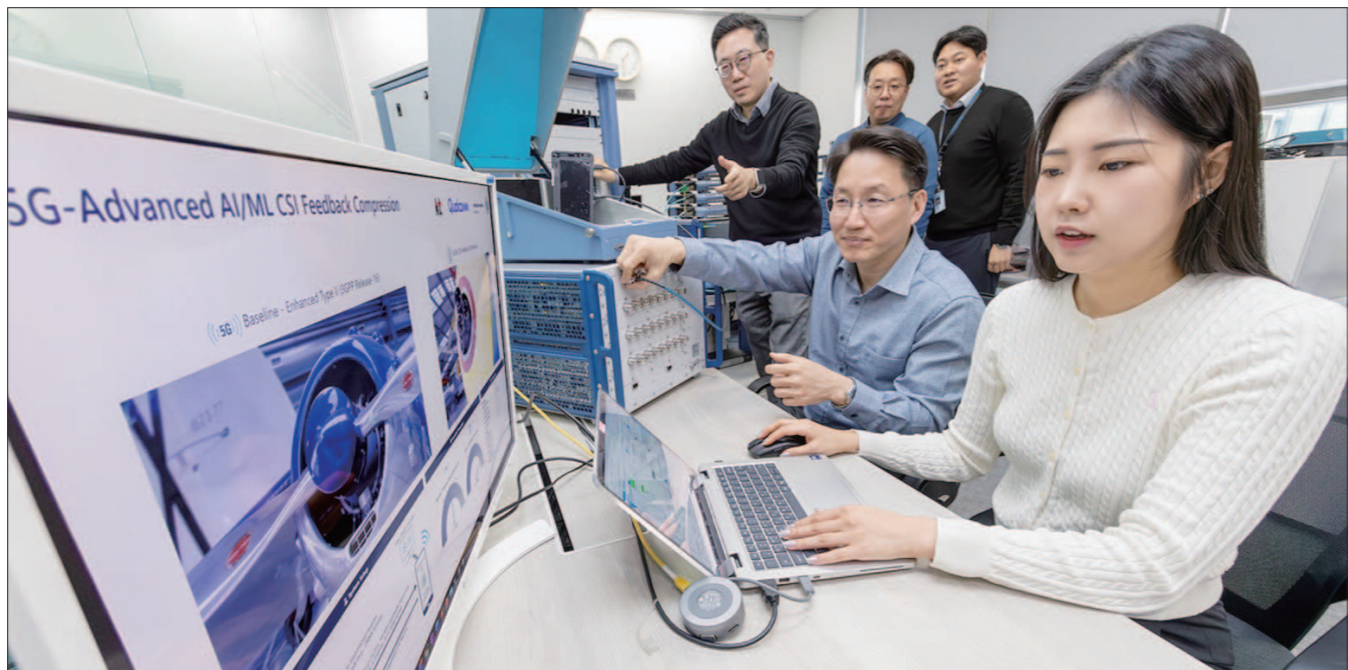
한편,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은 2028년 말 개점을 목표로 올해 착공하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3년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35층 규모 180m 높이의 버스터미널 빌딩 △42~44층 규모의 복합시설 빌딩 4개동을 조성한다.

단계별로는 1단계 (2026~2028년) 백화점 신관 신축, 2단계 (2028~2033년) 터미널·호텔·공연장·업무시설이 들어서는 터미널 빌딩 및 주거·의료·양로·교육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빌딩 4개동을 신축한다.

이번 사업으로 광천권역은 교통·문화·상업·주거 기능이 집약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대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KT, AI 기반 차세대 무선 송수신 기술 시연 성공 KT가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선도 기업인 퀄컴 테크놀로지스(퀄컴), 독일 통신장비 업체 로데슈바르츠와 손잡고 AI 기반 차세대 무선 송수신 기술 시연을 성공했다. 이번 기술은 3GPP 릴리즈 20에서 논의 중인 AI 기반 CSI(Channel State Information) 압축 기술로, 단말과 기지국 간 무선 환경을 AI가 학습해 채널 상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1조 규모 ESS 정부 입찰물량 전남에 집중

(에너지저장장치)

해남·신안 등 6개 사업 선정...계통도화 해소 기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ESS 중앙계약시점 입찰에 지난해 제1차에 이어 제2차에서도 전남도가 전체 입찰 물량을 확보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과 광주, 전북, 강원, 경북 5개 시·도 129개 계통관리변전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입찰에서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

ESS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와 연결

하는 ESS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일명 전력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제1차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낙찰 물량은 총 525MW로 규모로 1시간에 525MWh의 전력량을 ESS에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 또는 공급이 가능해야 하므로 ESS 저장용량

(배터리) 규모는 3150MWh 이상이다.

이는 약 800MW 태양광 발전소가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량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고 계통 수용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2027년까지 정부 계획에 따라 ESS 신규 입찰물량 1.1GW가 추가로 실시됨에 따라 시·군과 함께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부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 계획이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황솔촌 운암점, 설 맞아 반찬 150인분 후원 ‘눈길’

꿈나무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황솔촌 운암점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우성나눔재단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최근 황솔촌 운암점이 ‘함께하는 명절맞이 나눔사업 희망파트너 후원’을 후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부임한 강명관 꿈나무사회복지관장이 이용자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황솔촌 운암점이 준비한 다양한 반찬은 행사 당일 떡국과 함께 제공. 참여자들의 식탁을 채웠다. 정성껏 마련된 음식은 명절 분위기를 더하며 이웃 간 온기를 나누는 매개 역할을 했다.



황솔촌 운암점은 최근 ‘함께하는 명절맞이 나눔사업’ 일환으로 꿈나무사회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반찬 150인분을 지원했다.

황솔촌은 광주에 본사를 둔 외식 전문 기업으로 ‘함께 협력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경영 이념으로 두고있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인재 양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상생을 기업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실제 황솔촌은 광주 서구·광산구와

협력해 ‘사랑의 음식나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희망플러스 천나눔행사’와 ‘행복을 드리는 밥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5일 기준 누적 19억9000만원 상당, 558만여 인분의 음식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 안전망 보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삼성전자, 모니터로 올림픽 오심 막는다

초고화질 ‘뷰피니티 S8’·중계 최적화 ‘오디세이 아크’ 지원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 고성능 모니터를 제공해 심판진의 공정한 판단과 생생한 현장 중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쇼트트랙은 0.001초 차이가 순위가 결정되는 종목으로, 선수 간 미세한 접촉이나 스케이트 날의 위치 등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가른다.

비디오 판독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는 ‘필드 오브 플레이’ 구역에는 삼성전자 37형 모니터 ‘뷰피니티 S8(S80UD)’가 설치됐다.

해당 제품은 4K UHD(3840×2160) 해

상도와 16:9 화면비로 심판진에게 최적의 판정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 32형 대비 확장된 화면은 동일한 배율에서도 경기 장면의 세부 요소를 보다 크게 표시해 중요한 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공식 올림픽 방송사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가 운영하는 ‘비디오 룸’에 ‘오디세이 아크’를 설치했다.

이 제품은 커브드 스크린을 적용한 55형 대화면으로 왜곡을 최소화하고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정승기 기자 sky@

2026 전남교육

AI로 비상합니다

메일브라우저에서 접속하세요

전남형 온라인 미래교육플랫폼

전남메타스쿨

metaschool.jne.kr

온라인 미래교육플랫폼

- 사용자 맞춤형 학습분석 콘텐츠 제공
 - **학생(학부모)** 각종 학습 자료, 수업활동 AI코스웨어 등
 - **교직원** 유·초·중·고 교수학습자료(영상 포함) 에듀테크 강좌 AI코스웨어·저작도구 등 활용 지원

교육행정 업무AI JneGPT

- 업무 자료 작성 및 정보 탐색 지원 AI
 - **교직원** 교수학습자료 제작 학교생활기록부·가정통신문 작성, 각종 법령 이해,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등